01. 다음 문장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장들이다. 모호성의 이유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2014 서울시 7회 5번 유형

① 내가 지난번에 만난 친구의 동생이 오늘 결혼을 한다고 한다.
② 그 연속극은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남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③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④ 아내는 남편보다 아들을 더 좋아했다.
⑤ 그 배는 보기가 아주 좋았다.

02. 다음 문장에 쓰인 수사법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 2014 서울시 5회 14번 유형

우리 옹기는 양은그릇에 멱살을 잡히고, 플라스틱류에 따귀를 얻어맞았다.

① 그는 30년 동안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서 붓을 들기 시작했다.
② 지금껏 역사를 굽어본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
③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④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03.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2014 서울시 10회 1번 유형

인간은 흔히 자기 뇌의 10%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또 사람들은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조차 자기 뇌의 15% 이상을 쓰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암 제임스로 추정된다. 그는 “보통 사람은 뇌의 10%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20%를 사용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한발 더 나아가 그 비율이 10%가 아니라 6%라고 수정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와서는 인간이 두뇌를 단지 1%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1%에 불과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됐다.

① 인간의 두뇌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
② 어른들도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④ 인간의 두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⑤ 어린 시절부터 개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04.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 2014 서울시 10회 16번 유형

① 올해 신입생 <u>입학율</u>이 저조하다.
② 네 기사가 <u>어린이란</u>에 실렸다.
③ 알고도 모르는 <u>채하였다.</u>
④ 남술의 처는 또 한 번 웃기 잘하는 그의 입술을 <u>방끗</u> 벌리었다.
⑤ <u>껍질채</u> 먹는 것이 몸에 좋다.

05. 다음 중 70세를 가리키는 말로 옳은 것은? 2014 서울시 11회 9번 유형

① 이순(耳順) ② 종심(從心)
③ 지천명(知天命) ④ 불혹(不惑)
⑤ 이립(而立)

06.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것은? 2014 서울시 6회 5번 유형

① 절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③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④ 그다지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⑤ 오직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길 뿐입니다.

07. 국어의 어휘 의미 변화에 대한 다음의 진술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2014 서울시 8회 19번 유형

① ‘다리(脚)’가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가리켰으나 현대에는 ‘책상’에도 쓰인다.
② ‘짐승’은 ‘衆生’에서 온 말로 생물 전체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킨다.
③ ‘사랑하다’는 ‘생각하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 의미가 없다.
④ ‘어여쁘다’는 ‘조그맣다’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아름답다’의 의미이다.
⑤ ‘어리다’는 ‘어리석다’는 뜻이었다가 지금은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쓰인다.

08. 다음 예문의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4 서울시 12회 3번 유형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두루 사시(四時)를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중에도 그 혜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 봄 가운데도 만산(萬山)에 녹엽(綠葉)이 우거진 이때일 것이다.
> – 이양하, 〈신록예찬〉 중에서

① 두루 ② 가장
③ 풍성히 ④ 아낌없이
⑤ 아름답게

09. 다음 예문 중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는? 2014 서울시 5회 18번 유형

① 철수는 그 예쁜 소녀가 자꾸 생각났다.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했다.
③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④ 돌이는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직감했다.
⑤ 철수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10. 다음 단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래어 표기의 원칙은? 2014 서울시 9회 17번 유형

> 콩트, 더블, 게임, 피에로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③ 외래어의 1음운은 원음에 가깝도록 둘 이상의 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미 굳어진 외래어도 발음에 가깝도록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원음에 더욱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 문자나 기호를 만들 수 있다.

11. 다음 문장의 의미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순서대로 바르게 옮긴 것은? 2014 서울시 4회 7번 유형

> 그는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 그 집에 가면 부정을 탄다는 소문이 있다.
> 답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 한다.
>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어서 혼란스럽다.

① 不淨- 不正- 不正- 否定
② 不正- 不淨- 不定- 否定
③ 不定- 不淨- 否定- 不定
④ 不貞- 否定- 不淨- 不定
⑤ 不貞- 不定- 否定- 不淨

12. 다음 사자성어 중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2014 서울시 13회 6번 유형

① 桑麻之交 ② 刎頸之交
③ 膠漆之交 ④ 金蘭之交
⑤ 水魚之交

13. 다음 중 창작군담소설(일명 영웅소설)의 특징이 아닌 것은? 2014 서울시 11회 16번 유형

① 영웅의 일생 이라는 전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
② 대중소설적 성격이 강하다.
③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
④ 시·공간적 배경은 16~17세기 조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⑤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14. 1930년대 문단의 상황에 대한 다음 진술 중 잘못된 것은? 2014 서울시 10회 16번 유형

① 김동리, 김유정 등 동반자 작가들이 활동했다.
②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이 크게 유행했다.
③ 모더니즘 문학이 도입되고 다양한 기법이 실험되었다.
④ 전원파, 청록파, 생명파 등이 등장했다.
⑤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KAPF)가 해체되었다.

15. 다음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2014 서울시 9회 6번 유형

> 머언 산 청운사(靑雲寺)/ 낡은 기와집
> 산은 자하산(紫霞山)/ 봄눈 녹으면
>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굽이를
> 청노루/ 맑은 눈에
> 도는/ 구름 – 박목월, 〈청노루〉

① 시상이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② 시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③ 시상이 화자의 심리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④ 시상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⑤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6.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어가 적절히 사용된 것은? 2014 서울시 4회 14번 유형(일부 동일 선택지)

① 가상(假像)현실에서는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다.
② 가시(可示)적인 성과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
③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인생 편력(遍歷)이 드러나 있다.
④ 그 이야기는 과장(誇長) 없는 사실이다.
⑤ 삶에 대한 통찰(通察)이 묻어나는 말씀이다.

17. 다음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예들 중 일부이다. 아래 보기의 설명 가운데 이 예들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것은? 2014 서울시 13회 19번 유형

잇몸, 바닷가, 뒷일, 전셋집

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②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③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④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18.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는 문장은? (∨ 는 띄어쓰기 부호) 2014 서울시 12회 15번 유형
① 옷∨한벌∨살∨돈이∨없다.
② 큰∨것은∨큰∨것∨대로∨따로∨모아∨둬라.
③ 강아지가∨집을∨나간∨지∨사흘∨만에∨돌아왔다.
④ 이∨나무는∨10∨미터가∨넘는다.
⑤ 합격했다는∨말에∨뛸듯이∨기뻐하였다.

19.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2014 서울시 9회 15번 유형
① 궁도련님 :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② 윤똑똑이 : 사리에 어둡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
③ 책상물림 : 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④ 두루치기 :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 또는 그런 사람
⑤ 대갈마치 :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

20. 다음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묶은 것이다. 이들 가운데 표준어가 아닌 예가 들어 있는 것은? 2014 서울시 1회 2번 유형
① 눈대중 - 눈어림 - 눈짐작
② 보통내기 - 여간내기 - 예사내기
③ 멀찌감치 - 멀찌가니 - 멀찍이
④ 넝쿨 - 덩굴 - 덩쿨
⑤ 되우 - 된통 - 되게

분야	문법	비문학	문학	어휘
문항수	6	4	4	6
비중	30%	20%	20%	30%
내용	맞춤법 품사 사이시옷 띄어쓰기 표준어	글의 내용 유추,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호응, 문장의 중의성	수사법, 시의 이해, 군담 소설, 1930년대 문학의 특징	나이 어휘 한자어 고유어, 사자성어 의미 변화 한자어의 의미

지식 유형	18 문항	90%
이해 유형	2 문항	10%

01. 〈정답 : ⑤〉

※ ①~④는 구조적인 이유로 중의적인 문장이고, ⑤는 어휘적인 이유로 중의적인 문장이다.

⑤ '배'가 먹는 배〔梨〕, 타는 배〔船〕, 신체 배〔腹〕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정리〉

① '만난' 대상이 '친구'인지, '동생'인지 모호하다.

※ 용언의 관형형 V 체언+'의' V 체언 - 중의적일 확률이 매우 높다.

②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남편 - '가정에 충실한'이 '주부'만을 꾸미는지,

〈가정에 충실한〉〔주부와 남편〕- '주부와 남편' 모두를 수식하는지 모호하다.

③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 '내가 국어 선생님과 함께'의 의미인지,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선 선생님〉을 - '내가 만난 대상이 두 사람'인지 모호하다.

④ ㉠ 단순 비교 - 아내가 '남편 〈 아들'의 의미로 '아들'을 더 좋아했다는 의미인지,

㉡ 정도 비교 - 〔아내 ♥ 아들〕 〉〔남편 ♥ 아들〕 의 의미인지 모호하다.

02. 〈정답 : ②〉

〈보기〉는 '옹기'가 '멱살을 잡히고', '따귀를 얻어맞았다.'와 같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의인법〉이 사용된 문장은 '강물'을 '굽어본다, 말없다.'로 표현한 ②이다.

〈오답 정리〉

① 대유법 - '유니폼'과 '붓'의 속성을 통해 '직업', '글'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③ 점층법, 대조법 - 뒤로 갈수록 의미가 점점 강해지며(점층), 돈보다 명예가, 명예보다 건강을 잃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잃는 것을 〈대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④ 도치법, 대유법 - 문장의 순서를 뒤집어 강조하고 싶은 '붉은 산, 흰 옷' 부분을 뒤에 표현하고 있으며(도치) '붉은 산, 흰 옷'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나타내고 있다(대유).

⑤ 은유법 - 'A(원관념)는 B(보조관념)이다'의 은유법을 사용하였다.

※ 대유법에는 ㉠ 제유법 -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비유법, ㉡ 환유법 - 속성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비유법이 있는데 ①, ④의 대유는 '환유법'에 속한다.

03. 〈정답 : ⑤〉

제시문은 '인간이 자기 뇌의 10%도 쓰지 못하고 죽으며, 심지어 더 낮은 수치의 활용도에 불과함을 보여 주는 다른 주장들도 있다.'라는 요지의 글이다. 따라서 ① 인간의 두뇌가 낮은 활용도를 갖도록 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② 어른이 되어서도 사용되지 못한 뇌의 활용도를 계속 높여야 한다는 주장, ③ 학교의 학생 재능 발휘 여건 조성에 대한 주장, ④ 인간 두뇌 개발 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주장 등은 뒤에 전개되기에 적절하지만, ⑤ 〈개성적인 인간을 위한 조기 교육〉은 이 글의 논지와 무관하다.

04. 〈정답 : ④〉

④ '방끗'은 '입을 예쁘게 약간 벌리며 소리 없이 가볍게 한 번 웃는 모양'을 가리키는 〈부사〉로 표준어이다.

※ 방긋 = 방긋이 = 방끗 = 방끗이(부사)

〈오답 정리〉

① 입학 + 률 = 입학률(O)

※ 모음, ㄴ + 열, 율 / 나머지 받침은 '렬, 률'

→ 앞의 말의 받침이 'ㄱ'이므로 '률'로 표기하는 것이 바르다.

② 어린이(고유어) + 난 = 어린이난(O)

※ 한자어 + 란(欄), 량(量), 룡(龍), 릉(陵) / 고유어, 외래어 + 난, 양, 용, 능

→ '어린이'는 고유어이므로 '난'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르다.

③ 의존명사 '척/체'에서 파생한 보조용언으로 '척하다/체하다(O)'로 표기하는 것이 바르다.

※ '채' - 부사/ 의존명사

㉠ 부사 '채' -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

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소리를 질렀다./열다섯이 채 될까 말까 한 소녀였다.

㉡ 의존명사 '채' -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간다./노루를 산 채로 잡았다./벽에 기대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⑤ 껍질째(O)

※ '째' - 접사(앞 말에 붙여 쓴다.)

㉠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그릇째/뿌리째/껍질째/통째/밭째.
㉡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몇째/사흘째/며칠째/두 잔째/여덟 바퀴째/둘째/셋째.

05. 〈정답 : ②〉
② 종심(從心) - 70(일흔)살. ≪논어≫에서 공자가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 말로 '나이 칠십에 이르면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法度)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의미이다.

〈오답 정리〉
① 이순(耳順) - 60(예순)살. ≪논어≫에서, 공자가 '예순 살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한 데서 나온 말.
③ 지천명(知天命) - 50(쉰)살. ≪논어≫에서, 공자가 '쉰 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한 데서 나온 말.
④ 불혹(不惑) - 40(마흔)살. ≪논어≫에서, 공자가 '마흔 살부터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았다.'고 한 데서 나온 말.
⑤ 이립(而立) - 30(서른)살. ≪논어≫에서, 공자가 '서른 살에 자립했다.'고 한 데서 나온 말.

※ 지학(志學) / 지우학(志于學) - 15(열다섯)살. ≪논어≫에서, 공자가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 고 한 데서 나온 말.

06. 〈정답 : ③〉
③ '모름지기'〈부사〉- '사리를 따져 보건대 마땅히. 또는 반드시.' + '~해야 한다.'혹은 '~아야/어야 한다.'의 짜임과 함께 오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된다.
→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O).

〈오답 정리〉
① '절대로' -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의미의 〈부사〉로 '절대(絶對)'와 동의어이며.
㉠ 뒤에 〈부정, 금지〉의 의미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 세상에 절대로 공짜라는 것은 없다. / 절대로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절대, 꼭〉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
예) 당신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② '아직'〈부사〉-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 동생이 아직 잠을 잔다./그는 아직 청춘이다./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밥이 아직 덜 됐다.

④ '그다지'〈부사〉
㉠ '그러한 정도로는. 또는 그렇게까지는.' + '않다, 못하다'
예) 그다지 예쁘지는 않다./그다지 달갑지 않다./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주로 의문문에 쓰여) + 그러한 정도로. 또는 그렇게까지.
예) 그 사람은 무슨 걱정이 그다지도 많은가?/어디를 그다지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⑤ '오직'〈부사〉-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예) 오직 그녀만을 사랑한다./그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오직 먹고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07. 〈정답 : ④〉
④ 〈어의 전성/ 의미 이동〉- '어여쁘다'는 15C '불쌍하다〔憐〕'의 뜻이었으나 현대에는 '예쁘다〔艶〕'의 의미로 사용된다.

〈오답 정리〉
① 〈의미 확대〉- 15C '다리(脚)'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가리켰으나 현대에는 '책상'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의 하체의 의미로 쓰인다.
② 〈의미 축소〉- '짐승'은 15C '衆生(중생)'에서 온 말로 생물 전체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킨다.
③ 〈어의 전성 / 의미 이동〉- 15C '사랑하다'는 '생각하다'의 의미였으나 지금은 '사랑하다〔愛〕'의 의미로 사용된다.
⑤ 〈어의 전성 / 의미 이동〉- 15C '어리다'는 '어리석다'는 뜻이었다가 지금은 '나이가 적다〔幼〕'의 의미로 쓰인다.

08. 〈정답 : ⑤〉
⑤ '아름답게' - '게'는 원래 어미의 자리로 '아름답다'가 기본형이라는 의미가 되고, 기본형 '아름답다'를 갖는 〈형용사〉이다.
※ 주의!! 낱말에 〈-아/어/게/지/고〉의 꼬리(어미)가 붙는 것은 기본형 '- 다'를 갖는다는 의미이며, 품사는 용언(동사, 형용사)라는 의미가 된다.

〈오답 정리〉
① 두루〈부사〉 - 빠짐없이 골고루.
예)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다/그는 여러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춘 신랑감이다./그는 고위 관직을 두루 거쳤다.
② 가장〈부사〉- 여럿 가운데 어느 것보다 정도가 높거나 세게.
예) 가장 높은 산/그 아이가 우리 반에서 가장 빠르다./할아버지께서는 형을 가장 사랑하셨다.
③ 풍성(豊盛)히〈부사〉 - 넉넉하고 많이.

예) 풍성히 차린 음식/그 근방에는 물자도 풍성히 나돌았다.

④ 아낌없이〈부사〉 - 주거나 쓰는 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예) 아낌없이 주다/그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낌없이 썼다.

※ 주의 ①!! '이/히'는 부사 파생접사 -〈풍성히〉, 〈아낌없다〉는 〈풍성하다(형용사)〉, 〈아낌없다(형용사)〉와 관계있는 말이지만 이미 〈이, 히〉의 접사를 취하여 〈부사〉로 파생한 경우에 속한다.

주의 ②!! 〈아낌없다〉는 〈형용사〉이지만 〈-는〉을 붙여 〈아낌없는〉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09. 〈**정답 : ③**〉

※ ①~⑤의 문장은 모두 서술어가 2개 이상인 복문장(겹문장)이다. 다만 ③만 이어진 문장이고, 나머지는 안은문장에 해당한다.

③ 봄이(주어1) 되니까(술어1)/ 〔온(관형어) 강산에(부사어)〕 꽃이(주어2) 가득(부사어) 피었다(서술어2).

→ 앞의 내용이 원인, 뒤의 내용이 결과를 가리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① 관형절, 서술절 안은문장.

→ 철수는(주어1) 〈**그(관형어) 예쁜(서술어3)>** **소녀가(주어2)**
관형어
[자꾸(부사어) 생각났다(서술어2)].
서술어1

② 명사절 안은문장

→ 농부들은(주어1) **<비가(주어2) 오기(서술어2)>**를 고대했다(서술어1). 목적어

④ 명사절, 관형절 안은문장

→ 돌이는(주어1) 〈〔지금이(주어2) **중요한(서술어3)]** 때
관형어
임(서술어2)〉을 직감했다(서술어1).
목적어

⑤ 인용절(간접 인용) 안은문장

→ 철수는(주어) 김 선생님이(주어2) 돌아가셨다(서술어2)고 말했다(서술어). 간접 인용

10. 〈**정답 : ①**〉

① '꽁트/떠블/께임/뻬에로(X)' → '콩트/더블/게임/피에로(O)'

→ 제1장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오답 정리〉

②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X)

→ 제1장 제3항 외래어 표기 받침으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ㄷ'(X)**

③ 외래어의 1음운은 원음에 가깝도록 둘 이상의 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X)

→ 제1장 제2항 외래어 1음운은 1기호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이미 굳어진 외래어도 발음에 가깝도록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X)

→ 제1장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⑤ 원음에 더욱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 문자나 기호를 만들 수 있다.

→ 제1장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11. 〈**정답 : ②**〉

② 不正- 不淨- 不定- 否定

· 그는 부정(不 아닐 부, 正 바를 정)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

· 그 집에 가면 부정(不 아닐 부, 淨 깨끗할 정)을 탄다는 소문이 있다.

→ 깨끗하지 못함. 또는 더러운 것.

※ 부정(을) 타다 - 부정한 일로 해를 입다.

· 답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不 아닐 부, 定 정할 정) 방정식이라 한다.

→ 일정하지 아니함. 정해져 있지 아니함.

·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否 아닐 부, 定 정할 정)도 아니어서 혼란스럽다.

→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 긍정(肯 즐길 긍, 定 정할 정)

※ 부정(不 아닐 부, 貞 곧을 정) -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

12. 〈**정답 : ①**〉

①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한 친구의 사귐'을 의미하는 한자성어이다.

① 상마지교(桑 뽕나무 상, 麻 삼 마, 之 갈 지, 交 사귈 교)

- 뽕나무와 삼나무를 벗 삼아 지낸다는 뜻으로, 전원에 은거하여 시골 사람들과 사귀며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 정리〉

② 문경지교(刎 목벨 문, 頸 목 경, 之 갈 지, 交 사귈 교)

-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

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 중국 전국 시대의 인상여(藺相如)와 염파(廉頗)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 문경지우(刎頸之友).
③ 교칠지교(膠아교 교, 漆 옻 칠, 之 갈 지, 交 사귈 교)〔교칠찌교〕
- 아주 친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교분을 이르는 말.
※ 중국 당나라의 시인인 백거이가 친구 원미지(元微之)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
④ 금란지교(金 쇠 금,蘭 난초 란, 之 갈 지, 交 사귈 교)〔금난지교〕
-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 금란지계(金蘭之契)〔금난지계/금난지게〕
⑤ 수어지교(水 물 수, 魚 물고기 어, 之 갈 지, 交 사귈 교)
-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는 뜻으로,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수어(水魚), 수어지친(水魚之親)

13. 〈정답 : ④〉
④ 〈창작 군담 소설〉의 배경은 〈중국〉인 경우가 많다.

※ 〈군담 소설〉은 ①'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이야기'가 흥미의 중심인소설로 ②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은 ③ 통속소설(대중소설)이며 ④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과 함께 독자를 많이 확보했던 인기 소설로, 〈창작 군담 소설〉, 〈역사 군담 소설〉, 〈번역 군담 소설〉로 나뉜다.
㉠ 창작 군담 소설
인물과 사건 : 허구(가공적 인물과 사건)
배경 : 중국
작품 : 〈소대성전〉, 〈조웅전〉, 〈유충렬전〉 등
㉡ 역사 군담 소설
인물과 사건 : 사실(임진왜란, 병자호란)에 근거한 허구
배경 : 우리나라
작품 : 임진록(임진왜란) / 임경업전, 박씨전(병자호란) 등
㉢ 번역 군담 소설
〈삼국지연의〉의 인기로 중국의 〈군담 소설〉이 번역되어 간행됨.
작품 : 〈삼국대전〉, 〈적벽대전〉, 〈조자룡전〉, 〈관운장전〉 등

14. 〈정답 : ①〉
① 동반자작가(同伴者作家) - 러시아 혁명 후 혁명의 실천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심정적으로 는 동조하는 작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카프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동조한 <u>유진오, 이효석, 채만식 등</u>을 말한다. → 김동리, 김유정 등(X)
※ · 김동리 - 인간성 옹호에 바탕을 둔 순수문학을 지향했으며 8·15해방 직후 좌익문단에 맞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무녀도〉, 〈황토기〉, 〈사반의 십자가〉, 〈등신불〉 등의 작품이 있다.
· 김유정 - 주로 자신의 생활이나 주변 인물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을 많이 썼다. 1935년 '구인회'에 가담해 김문집 · 이상 등과 사귀었으며 농촌과 도시의 토속적 인간상을 유머러스한 필치로 그려 내었다. 작품에 〈봄봄〉, 〈동백꽃〉, 〈따라지〉 등이 있다.

〈오답 정리〉
②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이 크게 유행했다(O).
→ 1930년대는 목적문학(카프)의 퇴조와 함께 순수문학이 절정에 이른 시기로, 시문학파 · 구인회와 같은 다양한 순수문학 유파들의 활동이 있었다.
※ 구인회 - 1933년에 결성한 문학 동인회. 김기림, 이효석, 이종명(李鍾鳴), 김유영(金幽影), 유치진, 조용만(趙容萬), 이태준, 정지용, 이무영(李無影)의 아홉 사람이 모여 결성한 것으로, 경향 문학에 반발하여 순수 문학을 지향하였으나 큰 활약을 하지는 못하였다.
③ 모더니즘 문학이 도입되고 다양한 기법이 실험되었다(O).
→ 1920년대의 뒤를 이은 '사실주의'가 이어졌고, 이와 함께 1930년대에 '모더니즘'이 도입되어 '백석, 박태원, 이상'과 같은 작가들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기법이 실험되었다.
④ 전원파, 청록파, 생명파 등이 등장했다(O).
· 전원파 - 김상용, 신석정, 김동명, 이무영 등을 이르는 말. 농촌 계몽 소설을 통하여 1935년을 전후하여 지식인들이 도시현실을 비판하고 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 붙여진 이름.
· 청록파 -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을 함께 이르는 말. 1940년 전후에 ≪문장≫을 통하여 문단에 등장한 세 사람이 1946년에 공동 시집인 ≪청록집≫을 간행한 데서 붙여진 이름. 주로 동양적 자연관과 관조적 세계관을 표현.
· 생명파 - 서정주, 오장환, 김동리, 유치환을 통틀어 이르는 말. 1936년에 ≪시인 부락≫과 ≪생리(生理)≫를 통하여 생명 현상에 관한 시적 관심을 표현한 공통점에서 붙여진 이름.
⑤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KAPF)가 해체되었다(O).
→ <u>**1925**</u>년 8월에 박영희, 김기진, 이기영 등 주로 신경향파 작가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문학 단체. 프롤레타리아 문학인의 전위적 단체로, 정치성이 짙은 문학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u>**1935**</u>년에 해산되었다. = 조선 프로 예술 동맹,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

15. 〈정답 : ①〉
※ 제시된 시는 시의 내용이 〈머언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 〈산〉 → 〈느릅나무〉
→ 〈열두 굽이 길〉 → 〈청노루〉의 순으로 '시적 화자'의 '시선의 이동(원경 → 근경)'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박목월, 〈청노루〉
· 성격 - 서경적, 향토적, 전통적
· 심상 - 정중동(靜中動)의 심상
· 시상 전개 - 시선의 이동(원경 → 근경)
· 주제 - 봄의 정경과 정취

16. 〈정답 : ③〉
③ 인생 편력(遍 두루 편, 歷 지낼 력)
- ㉠ 여러 가지 경험을 함.
예) 여성 편력/직업 편력/ 인생 편력
- ㉡ 이곳저곳을 널리 돌아다님. = 천력(踐歷), 편답(遍踏), 편순(遍巡).
예) 그는 벼슬을 버리고 전국 편력의 길을 떠나 평생을 방랑 속에서 지냈다.

〈오답 정리〉
① 가상(假 거짓 가, 像 형상 상)현실(X)
※ 가상(假像) - 주관으로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형상.
→ 가상(假 거짓 가, 想 생각 상)현실(O)
-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
② 가시(可 가할 가, 示 보일 시)적인 성과(X)
→ 가시(可 가할 가, 視 볼 시)적인 성과(O)
- 눈으로 볼 수 있는. 또는 그런 것.
④ 과장(誇 자랑할 과, 長 긴 장) 없는 사실(X)
→ 과장(誇 자랑할 과, 張 베풀 장) 없는 사실(O)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냄.
⑤ 삶에 대한 통찰(通 통할 통, 察 살필 찰)(X)
※ 통찰(通察) - 책이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훑어봄.
→ 삶에 대한 통찰(洞 마을 동/ 통찰할 통, 察살필 찰)(O)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17. 〈정답 : ⑤〉
⑤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다.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가외(加外, 한자어) + 일(고유어) = 가욋일[가왼닐/가웬닐], 사사(私事) + 일 = 사삿일[사산닐]

〈오답 정리〉
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바다(고유어) + 가(고유어) = 바닷가[바다까/바닫까]
②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이(고유어) + 몸(고유어) = 잇몸[인몸]
③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뒤(고유어) + 일(고유어) = 뒷일[뒨 : 닐]
④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전세(專貰, 한자어) + 집(고유어) = 전셋집)[전세찝/전섿찝]

18. 〈정답 : ③, ④(복수정답이어야 한다.)〉
③ 강아지(명)가(조)∨집(명)을(조)∨나간(동)∨지(의명)∨사흘(명)∨만(의명)에(조)∨돌아왔다(동).
→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문장의 〈만, 지〉는 〈의존명사〉로 모두 띄어 쓰는 것이 바르다.
④ 이(관)∨나무(명)는(조)∨10(관)∨미터(의명)가(조)∨넘는다(동).
→ 아라비아 숫자와 단위명사를 함께 쓸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다.
- 10V미터(O)/ 10미터(O)

〈오답 정리〉
① 옷∨한벌∨살∨돈이∨없다.(X)
→ 옷(명)V한(관)V벌(의·명)(O)
〈단위성 의존명사〉는 앞 말과 띄어 쓰는 것이 바르다.
② 큰∨것은∨큰∨것∨대로∨따로∨모아∨둬라.(X)
→ 큰(형)V것(의·명)대로(보조사)
〈대로〉는 체언과 함께 쓰이면 〈조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쓰는 것이 바르다.
※ 용언의 관형형V대로(의존명사) - 먹는V대로 / 간V대로
⑤ 합격했다는∨말에∨뛸듯이∨기뻐하였다.(X)
→ 뛸(뛰, 어간 + ㄹ, 어미) V듯이(의존명사)
〈듯이〉는 앞의 용언의 어미가 있으면 의존명사로 띄어 쓰고, 앞의 용언의 어미가 없으면 '어미'가 되어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뛰듯이(O)/뛴V듯이(O)/뛸V듯이(O)/뛰는V듯이(O)
끓듯이(O)/끓은V듯이(O)/끓을V듯이(O)/끓는V듯이(O)

19. 〈정답 : ②〉
② 윤똑똑이 -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숙맥(菽麥)[숭맥] -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

20. 〈정답 : ④〉
④ '덩쿨'은 비표준어이다. '덩쿨'을 제외한 모든 낱말이 표준어에 해당한다.